

투데이 칼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의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됐다.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구하며 동독은 물론 소련 및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통일의 초석을 닦은 독일 통일의 아버지였다.

1970년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방문 중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불기도 채 마르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이 모습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지금도 세계적인 가슴에 기억되고 있다. 그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독일 국민을 대표하여 말이 아닌 마음으로 사과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으나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 브란트 수상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사과의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동방정책'을 밀어붙이며 사죄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아테네위 수상 이래로 서독이 고수하고 있던 "동독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와는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했다. 대신 적극적으로 공산권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외교정책 이른바 '동방정책'을 폈다.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고수



정복규 논설위원

하면서 동독과 어느 정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련, 폴란드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이로 인해 소련 및 동구권 공산권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단결과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권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서독 안에서는 물론 우방국의 반대도 컸다. 그러나 브란트 수상은 공산당 세력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협상했다.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했다. 브란트 수상은 이 조약들을 통하여 독일은 예전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 위협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노력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대결과 냉전 그리고 분단이 계속되던 시기에 브란트의 외교정책은 화해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비난하고 대결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했다.

그리고 대결에서 화해로 가는 '동방정책'을 실행하였고 독일 통일의 초석을 깔았다. 196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철의 장막이 갈리기 시작했다. 철의 장막은 흔히 소련이 자유세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철의 장막은 미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 조치였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철의 장막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철의 장막에 균열이 생기자 서독은 값싼 에너지라는 소련으로부터의 선물이 찾아들었다.

러인강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동방정책은 의외의 효과마저 일으켰다. 바르샤바와 프라하,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벌어진 동구의 반소 운동도 실은 서독의 동방정책이 불러낸 자유의 바람 때문이었다.

전후 서독은 소련의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동독에서 생활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동독인들의 서독행 대규모 탈출 러시가 벌어졌다. 그때 강력히 제동을 건 두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다.

통일된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본능적으로 발동한 것이다. 그러나 서독 기민당 소속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 정권을 제압한 것처럼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독일 통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거기에는 크레믈린의 묵인 또는 협력이 있었다.

도미노처럼 동구에 다시 자유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구권의 소련 위성국 대부분이 자유세계의 일원이 된 것이다. 드디어 1991년 고르바초프의 하야를 통해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됐다. 소련의 붕괴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제1 원인이었다.

사설

고창 심원면의 역사

고창군 심원면 하절리 해안선 도로변에 '알뜰진미음식점'이 있다. 서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장어구이와 바지락죽이 전문이다. '알뜰진미음식점'은 2대째 대를 물려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던 음식점을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관광철 손님이 밀려와 일손이 부족하면 나이 든 어머니가 지원사격을 한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지금도 변함없이 달인이다.

이곳에는 풍천장어와 바지락죽 그리고 복분자 술이 있다. 장어구이에 곱합 좋은 복분자주를 곁들인 음식은 인기 만점이다. 특히 바지락죽은 일품이다. 맛으로 유명한 만큼 주문 예약을 많이 받는다.

심원의 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바지락이다. 실제로 심원 일대에는 장어 전문식당과 장어를 양식하는 양장장이 많다. 한때는 심원의 바지락이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심원의 바지락은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63세대가 바지락 생산을 주업으로 삼은 터전을 삼고 있는 인근 서동 마을은 30여 년 전 통풍배의 전복사냥으로 12명의 부녀가 몰살당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사고 당일에도 주민들은 바지락을 캐러 바닷가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심원은 마음 심(心), 으뜸 원(元)으로 마음이 으뜸인 곳이다. 심원의 고창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리꾼 진채선은 심원 출신이다. 그녀는 신재호의 동리장사에 들어가 소리공부에 매진한 끝에 경북 공경회루 낙성연에서 소리할 기회를 얻는다.

연인간이 된 신재호와 진채선 그리고 당대의 권력자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는 영화 '도리화'로 다시 태어났다. 심원면 주민들은 2021년부터 9월 1일을 '진채선의 날'로 제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웰다잉(Wel 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웰다잉이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업과 복지관 등에서는 비문 짓기부터 사후 신변 정리까지 웰다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웰다잉은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6년 속칭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 분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적 대상은 희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되었다.

질병이 있는 고령자 가운데는 병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끔찍한 질병의 구렁텅이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빠뜨리고 싶지 않

은 것이다. 결국 유서를 남기고 '조력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때, 삶을 끝내고 싶을 뿐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점점 더 잃어가기 전에 말이다.

죽음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고령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지 오래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다. 나이가 들고 질병이 오면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스스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잘 죽는 일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잘 죽을 권리'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죽음을 돕는 의사가 절실히 지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잿더미로 변한 하와이 라하이아



지난 10일(현지시각) 하와이 라하이아나의 건물과 자동차들이 산물로 전소돼 전해만 남아 있다.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아나는 이번 산물로 잿더미가 됐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반안트리 일부도 손상을 입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물 피해가 발생한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PACT 1주년' 기념 연설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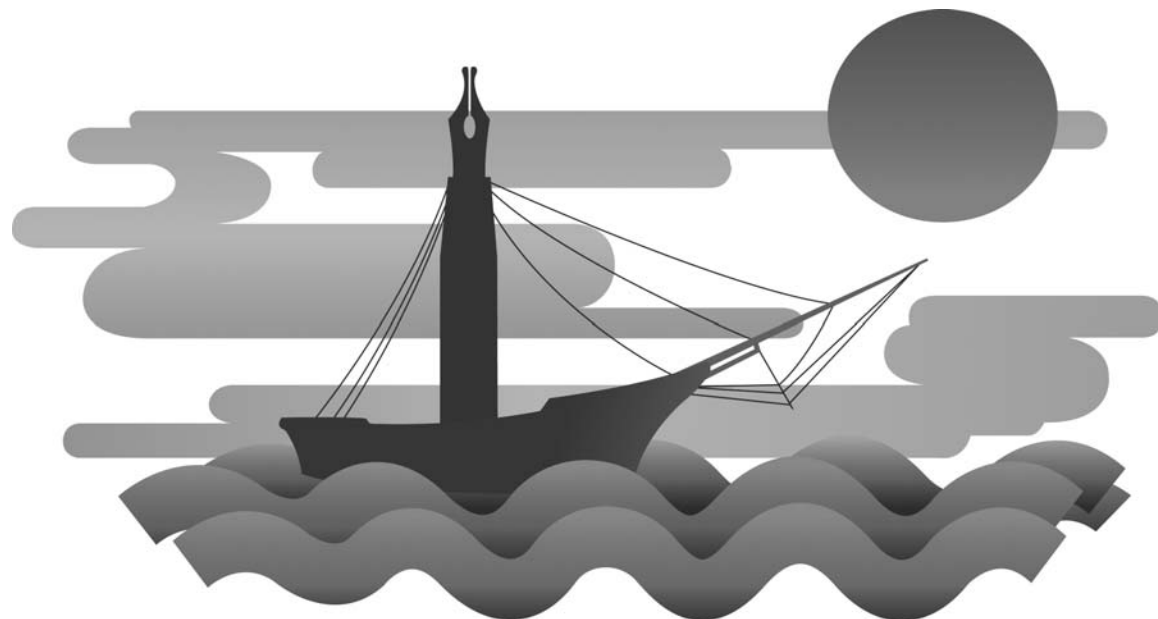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조지 E. 워런 보건부 의료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전용사 유해 물질 피해 보상법'(PACT) 1주년을 맞아 "우리가 헐지로 보낸 사람들과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며 "유타주 2천여 명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34만이 넘는 참전 용사가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